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1.7.27.(화) 오후 3시~4시30분,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석 위원 : 권혁남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이현숙, 정경모,
추문갑, 유환익, 김세한, 천경숙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시청자센터장, 보도국장

1. 다음 회의 일정

- 8월 일정 : 8월 24일(화) 오후 3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

- TV뉴스에서 영상은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특히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뉴스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자료화면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자료화면을 사용하면서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패널들의 좌담이 아닌 적어도 실시간 뉴스에서는 새로운 영상화면이 아닐 경우에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것이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되었다. 각 언론사들은 각국의 메달획득 순위를 매기고 있다. 메달 획득 순위는 각 나라마다, 언론사 마다 달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위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현재 연합뉴스TV는 금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다른 국가들은 금은동메달의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두고서 논란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TV는 각국의 메달 순위 집계 방식에 대한 자체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것들이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성기홍 보도국장

- 뉴스자료화면 표기문제는 자료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객관성과 피해자 보호입장에서 여러 종합적인 원칙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소홀했다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순위는 대한체육회집계 방식을 준용해서 발표한 기준으로 메달획득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7. 16 김대호의 경제읽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공고'고분양가' 논란 관련 보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이 시작되었으나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분양가 논란에 대한 보도로 김대호경제학 박사의 인터뷰에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선택과 알기 쉬운 설명이 좋았으며 이와 함께 사전청약대상지, 1차 공급지구, 공급일정 등 화면 영상 그래픽구성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양질의 보도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앵커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특히, 금번 공급계획이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특별공급)이 많고 그에 대한 자격요건, 방

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준비중에 있는 젊은층에게 매우 좋은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뚜기 라면값 인상계획에 따른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전망하는 보도와 관련하여 앵커의 시청자 호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멘트(대표적인 서민 음식은? 하나 둘 셋 라면)와 차분하면서 센스 있는 진행으로 시청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2. 4 공급대책에서도 시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좀 더 깊이 있는 의견, 이전 사전청약 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 등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지적하신 부분 다음에 반영하겠고 칭찬하신 부분은 앵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
- 이번 7월에는 연합뉴스tv의 대표 프로그램인 '탐사보도 뉴스프리즘'과 '연합뉴스tv 스페셜'을 검토하였습니다.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연합뉴스tv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13분 내외)과 연합뉴스tv 스페셜(25분 내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매주 1회 준비하여 보도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7월 23일 기간 중, 각각 29회(총 58회) 방영하였습니다. 금년 1월~7월 기간 중 방영된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관련, 탄소중립과 ESG 등 기후변화·환경문제,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 아동학대·학폭·군성범죄 등 폭력 문제 등으로 다양한 이슈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 16회 (뉴스프리즘 7회 / tv스페셜 9회), 탄소중립·기후변화·환경문제 : 7회 (뉴스프리즘 3회 / tv스페셜 4회), 인구/가족/세대/폭력 문제 : 7회 (뉴스프리즘 5회 / tv스페셜 2회), 부동산 문제 : 6회 (뉴스프리즘 4회 / tv스페셜 2회), 기타 재보선 결과, 암호화폐·비트코인, 미·중 신냉전과 우리의 대응방안, 위기의 지방대 등 < 주요 이슈별 내용 > 코로나19 관련 이슈 (뉴스프리즘)에서는 세계 백신 양극화(1.2), 코로나 이익공유제(1.30)/손실보상(2.6), 백신전쟁 현황과 과제(5.8), 글로벌 백신허브 실현?(6.4), 델타변이 확산 4차대유행 고비(7.12) 등 이슈들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취재를 통해 알기 쉽게 다루었습니다. 7월 들어 '대유행' 조짐이 다시 시작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까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린 방역 현장을 취재하고 다시 K-방역의 힘을 보여줄 때라는 내용, 7.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 이에 대한 대비를 시민과 정부, 국회, 전문가 등 취재를 통해 밝혀줌, 해외(영국, 이스라엘) 동향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대응 관리가 매우 중요함, (tv스페셜)에서는 대한민국 희망백신(1.10), 코로나19 확진 1년(1.24), 백신 성공의 조건(2.14), 1차 대유행 1년후 코로나19가 남긴 것(2.21), 백신 접종 오해와 진실(3.28), 확산하는 델타변이 - 긴급진단 코로나19(7.12),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7.18) 등을 통계자료와 전문가들의 심층 진단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방향(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고비가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진단(전문가들의 시각에 본 4차 대유행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심층 분석함,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계자료를 통해 밝힘,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출현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진단함, 9월까지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백신 접종과 감염 차단, 방역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

- 7월 1일은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품목을 수출 규제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대체 공급선 확보로 일본의 의도가 실패했다는 평가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따라잡기 힘든 핵심 기술 확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7월 1일을 전후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 보도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합니다. (6.30) '탈일본' 가속화한 2년 ··· 기술기발 지속해야(7.1) [그래픽 뉴스] 일본 수출규제 2년의 성과 (7.2) [현장연결] 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히 ··· 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 문 대통령, 기업인들과 소부장 2주년 간담회(7.2)(7.4) 아사히 "대한 수출규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7.20) 문대통령, 한일회담 무산에 "아쉽다 ··· 언제든 만나길",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는 한일 관계의 중대하고도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연구비를 크게 증액하여 산학연이 합심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2년의 성과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각(통계)이 다르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라기보다 그 이전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일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와는 다른 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과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도 과거사 문제나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부장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이나 연합뉴스tv 스페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진단(필요시 연재)하면 정부나 기업, 연구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뉴스프리즘과 스페셜프로그램 칭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슈에 대한 보도하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코로나시대에 제작진들 고생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구성이 잘 되어있으며 특별히 지적할게 없이 훌륭하다. 저출산 대책, 아기 울음소리 65개월째 줄었다..4월 출생아 2% 감소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수는 2만2820명이다. 지난해 4월에 비해 501명, 2.2% 감소했다. 전년 동월 비 출생아수 감소는 2015년 2월 이후 65개월 연속이다. 다만 4월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전년대비 감소폭을 보였다. 4월 사망자수는 2만5087명으로 인구 자연증감은 2267명 감소다. 지난해 4월에 비해 자연감소 인구가 912명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출산연령 층인 30대 여성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라며 "초혼 연령과 첫 아이 출산 연령이 올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혼인건수는 1만5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혼은 90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다. 한국의 인구는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첫 자연감소로 돌아선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60대 인구수가 2030대를 추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와 한층 더 높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주어지는 몇 백 만원보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7/4 18:00 전문가(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대담하였는데,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서 좋았습니다. 특시 델타 변이 및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이 알기 좋았고, 그 전파력(감염재생산지수가 5~8)에 대한 설명으로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부분이 더욱 더 좋았습니다. 나날히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칭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이현숙 위원
- [뉴스프리즘] '영혼의 살인' 아동 학대...실태와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점은 좋았으나 쉼터로 오는 피해 아동이 적은 이유가 자녀에 대한 소유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는데 그 보다는 뒤에 아동복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인 쉼터의 상황, 가정 복귀 후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과 아동학대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다루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공...흔들리는 셧다운제, 셧다운제도 폐지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셧다운제도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만 자녀가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셧다운제도 폐지에 대해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바일 게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10년 전 도입되었을 때 그대로라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셧다운제도와 같은 논란이 있는 이슈는 균형감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주제를 다룰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관점이 UN아동권리협약 제3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는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게임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 제도가 이러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 아닌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게임 업계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도 대신 과몰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준비했는지, 가정에서 게임과 관련하여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데 얼마나 투자했는지 등 고민해야할 거리가 많은 주제라는 점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뜨거운 이슈된 '여가부 존폐' 논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다양한 시선에서 다룬 의미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의 탄생에서부터 여성가족부의 역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성차별 문제, 여성가족부의 젠더이슈 대응력,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젠더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문제 등 여성가족부 존폐를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연관된 이슈를 짚어주었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전문적인 식견에 감사드리며, 이후에 다룰 때 다른입장의 의견도 챙겨서 균형적인 보도에

충실하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탄소중립 위한 실천 방안 지속적 방송 필요, 지난 6.27 방영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의 "탄소중립 : 숲에서 찾는 해법"은 탄소중립과 구체적 방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 탄소중립은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는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독일 21.6%, 일본 20.8%, 미국 11.6%, 영국 9.6%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아 산업구조상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산업계도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산업구조 특징상 급격한 감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탄소흡수 및 저장을 통한 감축도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라 볼 수있음, 이러한 점에서 연합뉴스TV 스페셜의 "탄소중립 : 숲에서 찾는 해법"은 현실적인 방안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송했으면 좋겠음, 탄소중립 문제는 산업계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도 방송을 통해 알려줄 필요, 나아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포집 기술 및 정책적 지원제도 등 지속적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기홍 보도국장

말씀하신 탄소중립 중요한 사항이니, 앞으로도 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문갑 위원

7월14일 "6월 취업자수 넉달째 증가...증가폭 둔화청년고용 늘어"라는 제목으로 6월 취업자 수가 58만2,000명 늘며, 3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이어갔고,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이 20만9,000명 늘어 2000년 7월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7월19일 "구직단념자 역대 최대....절반가량은 2030"이라는 제목으로 6월 구직단념자가 58만 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천명 늘어 지난해 3월부터 16개월 연속 같은달 기준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는데 20대가 18만 6천명, 30대는 8만 7천명으로 20·30대가 전체의 46.8%에 달한다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20일 "취업준비생 86만명 사상최대...3명중 1명은 공시생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여파로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역대 최대치로 15~29세 청년 가운데 85만 9천명인 19.1%가 취업시험 준비생이라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상기 3개의 보도 모두 통계청 발표자료를 인용한 취업동향에 관한 것인데 결론은 청년일자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사회의 첫발의 내딛기도 전에 실업자가 되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 화두인 청년일자리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보도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21일 "자영업자 은행대출 코로나1년반새 67조원 급증"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잔액이 1천 22조1천억원으로 코로나 발생이전인 2019년 12월말보다 153조 1천억원이 늘었고,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 3천억원(18.5%),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은 66조 9천억원(19.8%)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과 소비심리도 코로나 이전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민 백신접종만 확대되면 소상공인 매출도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말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거리두기가 역대최고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유동성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1년 6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9월말이면 금융당국인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연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은행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실태와 신용상황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한 보도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작진에게 전달해서 유념해서 제작 하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 지난 1개월간의 "문화·연예" 분야의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 총 76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76건의 기사 중 BTS 관련보도가 12건, 이건희 컬렉션/기증관 등 관련보도가 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달의 문화연예관련 보도는 76건으로 평월 평균(60건)에 비해 2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량으로 볼 때에는 문화연예관련 비중이 늘어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월별 보도건수 : 2월 61건, 3월 63건, 4월 56건, 5월 103건, 6월 50건) 그러나 이번 달은 무더위와 코로나19 제4차대유행 등으로 인한 영향인지 기획취재 건수는 좀 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특히 이건희컬렉션/기증관 관련 보도가 많았던 것도 다양한 기획취재가 줄어든 것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듯 「'황소'부터 '인왕제색도'까지 이건희 컬렉션」, 「'세기의 기증' 특별전으로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기증관 건립..후보지는 서울용산, 송현동」 등 이건희 컬렉션관련 보도가 많았다. 다만, 이건희 컬렉션의 세부 내용, 즉 이번에 기증한 미술품이나 고서적, 유물 등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이건희 컬렉션과 기증관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보기 어려웠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문화예술관련 보도는 단순한 내용 소개나 안내에 그치기보다는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함께 역사적인 기원이나 사회적인 맥락 등을 함께 다룬다면 기사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위의 '이건희 컬렉션' 관련 보도에 미술품 기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나 관련정책,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미술관 유치 경쟁의 내용 및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문제 등도 함께 다루면 좋았을 것이다. 지난 4월 평가에서도 평가한 바 있지만, 매일 오전 9시경에 방송되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코너에서 문화예술 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다루어져서 매우 반갑다. 이달에도 문화관련 부문의 인터뷰가 4회 방송되어 해당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행사의 기획의도와 목적 등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출근길 인터뷰' 「국보와 현대미술이 한자리에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7월 16일 보도) 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출연하여 기획전시회에 대한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여 「한국미의 뿌리를 찾아서...문화재와 현대미술의 만남」(7월 16일 보도) 기획취재와 잘 어우러져서 마치 콜라보레이션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위와 같은 협업을 보다 많이 시도하여 문화예술 보도부문의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김세한 위원

<1>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유죄 확정 보도 관련... 기사 부족 및 기사 검색 시스템 오류 발견

<사진 : 연합뉴스TV 앱 검색화면 캡처>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상고가 기각되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친문 핵심 인사인데다 대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속보, 1보, 2보, 종합 등 여러 꼭지의 기사를 쏟아냈고, 스트레이트 기사 외에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기사, 그동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기사, 여야의 반응, 창원교도소 입감 절차 등 다양한 관련기사들을 출고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홈페이지(PC)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하나도 검색이 안 됐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포털에서 '연합뉴스TV 김경수'를 검색해보니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대법, 징역 2년 확정> <'공모 없다' 주장했지만...'댓글조작 묵인' 인정> 2개 정도 기사가 검색됐습니다. 기사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PC)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검색하면 위 기사들은 검색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해당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김경수' 검색 노트북 화면 캡처>

또 하나의 문제는 연합뉴스TV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서 '김경수'를 포털 사이트(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최신 기사 혹은 중요 기사가 상단에 뜨지 않고, 어떤 순서로 배치됐는지 기준을 알 수 없는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었습니다. 아래쪽 '더보기'를 클릭하면 그나마 기사 배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마저 최신 기사가 상단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24일 오후 8시 현재 검색해본 결과 제일 위에는 <'친문적자' 김경수 만난 이재명..."원팀으로 파도 넘자">라는 제목의 6월 17일 기사가 제일 위에 노출돼 있었고, 그 다음 기사는 <[현장연결] 김경수 "법원의 판단은 존중...납득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의 김 전 지사가 입장을 밝히는 기사가 아니라 무려 8개월 전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전 지사가 입장을 밝히는 기사였습니다. 데스크톱을 이용할 때나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나 마찬가지인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 언론사는 모두 최신 기사가 상단에 뜹니다. <평가> 한정된 뉴스 시간에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여러 꼭지의 기사를 보도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형 이슈에 대해서는 기사 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최신 핫이슈를 검색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사가 검색되거나, 작년 기사가 상단에 검색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건의합니다.

-대선 여론조사 관련... 자체 여론조사도 실시했으면,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절대 강자가 없이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낙연, 이재명 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때마다 달라지면서 각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의 경우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슈폴폴]이라는 하나의 코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출연해 다른 언론사의 의뢰로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인데, 배종찬 소장님의 전문성 때문에 코너 자체는 충분히 유용

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이슈폴폴 검색 화면 캡처(왼쪽)와 더보기를 눌렀을 때 검색 화면 캡처. 이 경우에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처음 이슈폴폴을 검색하면 최근 뉴스가 아니라 작년 9월 뉴스가 제일 상단에 노출된다. 우측 사진을 보면 7월 8일 뉴스와 7월 15일 뉴스 제목이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합뉴스TV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보도종합채널인 YTN의 경우 정기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어 비교가 됩니다. 종합편성채널인 MBN의 경우 계열사인 매일경제와 함께, TV조선의 경우 조선일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연합뉴스TV도 계열사인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면 특히 대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관심이 커질 이슈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신뢰있는 뉴스를 보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대선을 앞두고 연합뉴스TV 자체적으로 혹은 연합뉴스와의 공동의뢰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보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7월 8일 방송된 이슈폴폴 제목에 '7월 둘째주 민심은?'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면, 다음주인 7월 15일자 방송에는 '7월 셋째주 민심은?'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야 하는데 둘째주로 8일 방송된 기사와 같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지만 포털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여론조사는 신뢰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게 많아서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한다는 큰틀에서 파급력 등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

- 7월 21자 오전 4시 뉴스, [단독] 훔친 차 몬 10대들... 한밤중 10대 남학생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는 단독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운전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날 붙잡힌 아이들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10대 아이들을 위해 정확한 처벌 수위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미디어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7월 26자 오후 7시 뉴스, [SNS핫피플] 놀이기구 타다 갈매기와 충돌한다면 어떻게? SNS 핫피플은 놀이기구를 타던 중에 갈매기와 부딪힌 소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 소녀는 생일을 맞은 친구와 함께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난데없이 날아든 갈매기와 부딪히고 맙니다. 놀란 소녀는 침착하게 갈매기를 떼어냈고, 갈매기는 다시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녀는 "정면에서 오는 갈매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재빨리 던졌다며 얼굴에 똥을 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전했는데요. 갈매기와 놀이기구 탄 두 소녀,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잊지 못할 추억만 남긴 것 같죠?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 경신을 하고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웃을 일도 없고 날이 갈수록 코로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서 좋았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0대 무면허운전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회부에 전달해서 기사작성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